

지리산권 중재실형 정자의 건축특성 및 지역성

A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locality of the *Joongjaesil*-type pavilion in the *Jirisan* Mountain area

손 희 경

Son, Hee-Gyoung

(부산대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이 호 열*

Lee, Ho-Yeol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Abstract

The remaining Joongjaesil(中齋室)-type pavilions in the eastern part of the Jirisan Mountain area showed more complex characteristics than those in the western part. The front number of kan(間) had two, three, and four kan(間) types, but the number of kan on the side was consistent with two regardless of the number of kan on the front. The pavillion is classified into 'central type', 'towards the backward type', and 'expanded by backwards type'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Joongjaesil. Joongjaesil's size, which characterizes the characteristics of Joongjaesil-type Pavilion, is related to the building's front number of kan. Front number of kan. When this space was increased by one space to four spaces, Joongjaesil must have two spaces. The pavilion with four bays in front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concentrated in Sancheong and Jinju, the eastern part of the Jirisan Mountain area. In the eastern region, many high pavilions remain, and the upper structure of the pavilion was insignificant, but the flat shape and public construction showed strong locality.

주제어 : 지리산권, 정자, 중재실, 중재실형 정자

Keywords : *Jirisan* Mountain area, Pavilion, *Joongjaesil*, *Joongjaesil* Type's Pavilion

1. 서 론

조선 중기 이후 양반사대부들은 경관이 수려한 곳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장수유식(藏修遊息)을 하기 위해 정자를 건립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역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이 같은 사정은 조선 중후기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 및 사회·경제적인 배경은 물론 자연과 유기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들의 자연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지리산권에 남아있는 조선말기에 1950년 사이에 전통적인 목조 건축으로 조영한¹⁾ 중

재실형 정자이다. 중재실형 정자는 평면 중앙부에 실(室)을 둔 독특한 형식으로, 선행연구에서 호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형식 정자라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²⁾. 『누정록(樓亭錄)』 등의 문헌 자료와 문화재 지정자료 등을 중심으로 중재실형 정자의 분포 지역을 조사한바 호남은 물론 경상도 서쪽의 지리산권 및 그 주변 지역, 경북, 충남 등지에도 중재실형 정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남과 경남의 도계(道界)에 위치하는 지리산의 동서 지역(지리산권)에 남아 있는 중재실형 정자를 대상으로 이들 정자의 건축 특성과 지역

* Corresponding Author : samhy@pusan.ac.kr

이 과정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조선말기에 창건 및 중건, 증수한 정자를 주 대상(12/20동)으로 하되 전통적인 사회조직과 건축문화가 큰 변화 없이 이어진 1950년

대에 증건 또는 증수한 정자(8/20동)라도 당초 모습을 따라 전통적인 건축구조, 형식으로 조영(수리)한 정자는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2) 김동욱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정자의 평면 중앙에 작은 온돌방을 두고, 주위에 개방된 마루를 꾸민 정자를 호남의 고유한 건축형식이라 했다.(김동욱, '담양 면양정의 건축형태(호남지역 건축의 지역성 형성에 대한 소고)', 『건축사연구』, 9권 3호, 2000, p.34.)

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재실형 정자건축의 입지와 평면형식, 출입방식을 및 구조형식, 입면구성 및 평면형식과 입면 등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지리산권 지역구분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지리산권’은 지리산에 직접 접해 있는 5개 시군(남원시·구례군·하동군·함양군·산청군) 및 섬진강과 남강을 통해 지리산권과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된 진주·광양·순천·곡성으로 이루어진 권역이다.³⁾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리산권의 동부지역인 경남의 함양·산청·진주(경남 서부) 및 서부지역인 전남 구례, 남원, 곡성(전남 동부)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다. 대상 지역은 다시 지리산의 동편인 동부지역(경남 서부지역)과 서편인 서부지역(전남 동부지역)으로 구분된다. 연구대상은 이곳에 남아있는 중재실형 정자 20동이다.

연구대상 중재실형 정자의 건립 시기를 살펴보면 조선말기에 지은 것이(중건, 중수 포함) 12동,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 사이에 지은 것이 8동이며, 주로 조선말기에 조영한 정자들이다. 하지만 함양의 농월정과 같이 근년에 소실된 후 최근에 중건한 것이나 화재로 소실되기 전의 사진, 도면 등이 남아 있어 소급해서 연구가 가능한 것은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함양 동호정의 경우 지금은 중재실이 남아있지 않으나 현지 조사 시 중재실(中齋室)을 설치했던 흔적이 확인되어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중재실형 정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호남의 전형적인 중재실형 정자(3×2칸)는 물론

그 이후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확장형(4×2칸)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⁴⁾. 전체 연구대상 20동 중 9동은 현재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11동은 비지정문화재로 남아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목록

NO	명칭	소재지	창건(중건)	관련 인물
1	봉산재	鳳山齋	경남 산청 1841(1877)	분성 배씨
2	오의정*	五宜亭	경남 산청 1872(1909)	여흥 민치완
3	일신재	日新齋	경남 산청 1924(?)	합천 이철경
4	죽림재	竹林齋	경남 산청 1870(1895)	거창 유씨
5	고산정*	孤山亭	경남 진주 1622(1906)	연일 정환
6	부사정*	浮查亭	경남 진주 1600(1902)	창녕 성여신
7	관란정	觀瀾亭	경남 진주 1901(근대)	김해 허국주
8	거연정*	居然亭	경남 함양 1872(1901)	정선 전재학
9	농월정	弄月亭	경남 함양 1637(1895)	밀양 박명부
10	동호정*	東湖亭	경남 함양 1895(1936)	거창 장만리
11	춘수정	春睡亭	경남 함양 1947(1987)	하동 정수민
12	영산정	永山亭	전남 곡성 1942(?)	완산 이주용
13	영수정	永守亭	전남 곡성 1826(1879)	순흥 안재원
14	천연정	天淵亭	전남 곡성 1900년경(?)	청송 심윤택
15	함허정*	函虛亭	전남 곡성 1543(1980)	청송 심광형
16	방호정*	方壺亭	전남 구례 1935(?)	문화 유형업
17	용호정	龍湖亭	전남 구례 1916(1945,92)	매천시과
18	운흥정*	雲興亭	전남 구례 1926(?)	지역 시사계
19	사계정사*	沙溪精舍	전북 남원 1609(?)	남양 방응현
20	퇴수정*	退修亭	전북 남원 1870(?)	밀양 박치기

* : 지정문화재 / 중건 - 중건 및 대대적인 중수

연구방법은 각 시군의 문화원이 발간한 누정록(樓亭錄) 등의 문헌을 조사하여 1950년 이전에 중수 또는 중건한 보존상태가 양호한 중재실형 정자⁵⁾를 1차로 선정한 뒤 현지 조사를 통해 정자의 보존상태와 개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연구대상을 확정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중재실형 정자(20동)는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잘 남아있는 목조건물로, 문헌 및 현지 실측조사, 사진촬영, 자료 검증작업을 거쳐 연구대상으로 확정하고 건축 특성과 지역성에 대해 고찰했다.

지금까지 영호남의 도계(道界)에 위치하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그 동서 지역에 남아있는 중재실형 정자에 대한 비교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3) ‘지리산권’이란 용어는 순천대 지리산문화권연구원에서 발표한 여러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리산권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에 관한 총체적 탐구를 위해 ‘지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용어를 사용했다. ‘지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순천대 지리산문화권연구원, 지리산권 서원자료선집2, 2010, 김창순·이진, 촌락가옥의 유형과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52권, 2호, 2017.4), 홍영기, ‘지리산권 문화’ 연구의 방향,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 2009, 등이 있다.

4) 평면 중앙부에 작은 온돌방이 있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정자를 비롯 중앙의 온돌방이 전후 방향으로 확장된 것 그리고 중앙에 온돌 대신 마루를 꾸민 것도 중재실형 정자가 변화한 것으로 보고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고찰했다.

5)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정자의 중재실 조성 시기를 중건 시기와 일치한다고 보았으며, 연구대상의 건축 시기는 문화재청 자료 및 정밀실측조사보고서, 각 시군 『누정록』의 기록에 의거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영호남 건축문화의 점진인 지리산권에 주목하여 그 동서(東西) 지역에 남아있는 중재실형 정자의 건축 특성 및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데 있다.

2. 선행연구와 지리산권의 중재실형 정자

2-1. 선행연구

중재실형 정자건축에 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선행연구의 주제와 연구내용은 표.2와 같다. 중재실형 정자건축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문으로는 김동욱(2000)의 면양정의 건축형태에 대한 연구⁶⁾가 있고, 이를 이어 손희경(2016), 김용선(2017)의 연구가 있다(표.2 참조). 김동욱은 담양 면양정의 건축형식을 통해 호남지역 중재실형 정자의 특성과 변천에 대해 고찰했으나 연구대상이 전남 담양의 면양정, 식영정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는 면양정의 건축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호남에 중재실형 정자가 정착한 시점을 17세기 중반으로 추정하고, 중재실형 정자를 호남의 건축특성을 잘 보여주는 정자라 했다⁷⁾. 이처럼 평면 중앙부에 작은 온돌방을 둔 독특한 평면의 중재실형 정자는 타 지역에 비해 경남 서부지역에 많이 남아있다. 손희경은 경남 서부지역에 남아있는 중재실형 정자를 조사하고, 건축적 특성을 고찰한 바 있다⁸⁾.

다음으로 ‘중재실’의 용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김동욱은 ‘중재실(中齋室)’의 용례에 대해 “김동수의 ‘호남지역 누정 조사연구.1(1985)’에서 처음 보이고, 『화순누정집』, 화순문화원(1997)을 비롯한 몇몇 문헌에서도 확인된다.”⁹⁾고 했다. 그도 문헌기록과 선행 연구 성과를 따라 논문에서 ‘중재실형(中齋室形)’이란 용어를 사용했다¹⁰⁾. 윤일이는 평면의 중앙부에 실(室)을 두고 주위에 마루를 꾸몄다는 점에서 ‘회자형’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¹¹⁾, 손희경은 평면 중앙부에 실(室)이 있는 정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중실형(中室形)이란 용어를 사용했다¹²⁾. 이 연구에서는 누정록(樓亭錄) 등의 문헌기록과 선행연구의 성과를 따라 중재실형(中齋室形)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표 2. 선행연구

연구자	논문
김동수(1985)	호남지역 누정 조사연구.1
김용기 외 1인(1992)	조선시대 정자원림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동욱(2000)	담양 면양정의 건축형태
유영광(2002)	무등산 주변 정자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윤일이(2006)	조선중기 호남사립의 정자건축에 관한 연구
최경관 외 2인(2009)	전라지역 정자건축의 배치 및 평면 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민주 외 2인(2011)	섬진강 중류지역 정자의 건축적 특성
손희경(2016)	조선후기 중실형 정자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경남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김용선(2017)	중재실형 정자의 사회적 수용과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2-2. 지리산권의 중재실형 정자건축

전국에 남아있는 중재실형 정자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각 지역의 누정록과 문화재 지정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중재실형 정자의 지역별 분포는 경남 21동, 경북 4동, 전남 25동, 전북 10동, 충북 4동으로, 이중 다수가 전남(25동)과 경남(21동)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전술한 중재실형 정자의 수를 토대로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지리산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전남 전역과 경남 서부지역 및 전북지역에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 서부지역에도 전남 다음으로 많은 중재실형 정자가 분포하는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군위·김천·영덕 등지에도 소수의 중재실형 정자가 남아있고, 그 외 충북의 경우 청주, 옥천, 충주에도 소수의 중재실형 정자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포상황을

6) 김동욱, 「담양 면양정의 건축형태」-호남지역 건축의 지역성 형성에 대한 소고-, 『건축사연구』, 9권 3호, 2000,p.34.

7) 김동욱은 중재실형 정자를 평면 중앙부에 단칸(1×1칸) 크기의 온돌방이 있는 정면 3칸, 측면 2~3칸 규모의 정자로 정의한바 있다. (김동욱, 「담양 면양정의 건축형태」, 『건축역사연구』, 통권 24호, 2000. 12, 한국건축역사학회, pp.34)

8) 손희경, 「조선후기 중실형 정자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16

9) 김동욱, 「앞 논문」, 『건축역사연구』, 통권 24호, 2000. 12, 한국건축역사학회, pp.34

10) 김동욱, 「앞 논문」, 『건축사연구』, 9권 3호, 2000,12, 한국건축역사학회, pp.34.

11) 윤일이는 16세기 이후 호남에서는 면양정이나 소쇄원 소쇄원 광풍각 처럼 가운데 온돌방을 둔 회자형이 선호되었다고 주장한다. (윤일이, 「조선중기 호남사립의 누정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7호,2006,7)

12) 손희경, 「조선후기 중실형 정자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산업대학원 석사논문(2016)

13) 전국에 남아있는 중재실형 정자의 개략적인 수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중재실형 정자는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두고 볼 때 전남과 경남 서부지역은 중재실형 정자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지리산권에 남아 있는 중재실형 정자에 대해 살펴보면 동부지역인 경남 함양군(4동), 산청군(4동)을 비롯 그 서부지역인 전남 구례군(3동)과 남원시(2동)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지리산권 동부지역의 경남 진주시(2동) 및 서부지역인 전남 곡성군에도 다수의 중재실형 정자가 남아 있다. 즉 지리산권에 전국에 남아있는 중재실형 정자의 약 30%가 분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리산권은 중재실형 정자의 비교 연구뿐만 아니라 건축문화의 교류와 접변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3. 중재실형 정자건축의 건축특성




3-1. 입지와 기능

중재실형 정자의 입지 유형을 조망, 천(川), 지형, 마을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계변형(溪邊形)’, ‘구상형(丘上形)’, ‘근린형(近隣形)’의 세 유형¹⁴⁾으로 구분된다. 먼저 ‘계변형’은 정자가 천(川)이나 계곡 주변에서 계류를 향해 입지하는 유형으로 계류에 인접한 것이 특징이다. 대개 산과 거리를 두고 앞쪽의 계류를 바라보도록 정자를 지었으며, 무엇보다 앞쪽의 수려한 수(水) 경관과 조화되게 정자를 건축한 것이 특징이다. 함양의 거연정, 농월정, 동호정 및 남원 퇴수정, 구례 운흥정 등 소수의 정자가 이 유형에 해당되며, 주로 입지 특성상 기단을 조성하지 않고 물가 자연 암반 위에 누하주가 있는 누각형으로 건축했다. 다음으로 ‘구상형’은 높고 밝은 언덕이나 높지 않은 산기슭에서 계류를 원경(遠景)으로 조망하는 입지 유형을 말한다. 천(川)에서 다소 떨어진 산지 구릉이나 말단부의 밝은 곳에 정자를 지어 주로 천(川)과 산천 경관을 조망하는 입지유형으로, 자연의 경관과 소리 등 오감(五感)을 만족시키기 좋다. ‘구상형’은 지리산권 중재실형 정자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입지유형이다. 여기에 속하는 정자로는 진주의 관람정·고산정 및 구례의 방호정, 남원의 사계정사 등이 있다.

‘근린형’은 주로 마을 내 평지에 입지하는 정자로 계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

어 계변형과 구상형에 비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점이 특징이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경승지에 위치하는 정자와 달리 마을 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정자를 지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큰 특징이다. 정자 명칭에 ‘재(齋)’ 자를 많이 붙인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재실(齋室) 또는 장수(藏修)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자 주위에 담을 둘러 영역을 한정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 같은 ‘근린형’ 정자는 지리산권 동부지역인 산청, 진주에만 나타나며, 대표적인 사례로 산청의 봉산재·일신재·죽림재 등이 있다.

표 3. 연구대상 중재실형 정자의 입지 유형

구분	계변형(용도) (5동)	구상형(용도) (12동)	근린형(용도) (3동)
지리산권 동부	함양 거연정(풍) 함양 농월정(풍) 함양 동호정(시) (3동)	산청 오의정(강) 진주 고산정(강) 진주 부사정(강) 진주 관람정(강) 함양 춘수정(중) (5동)	산청 봉산재(중) 산청 일신재(중) 산청 죽림재(중) (3동)
지리산권 서부	구례 운흥정(시) 남원 퇴수정(풍) (2동)	곡성 영산정(중) 곡성 영수정(중) 곡성 천연정(강) 곡성 함허정(풍) 구례 방호정(시) 구례 용호정(시) 남원 사계정(풍) (7동)	-
사례	 (함양 농월정)	 (곡성 영수정)	 (산청 일신재)

범례 용도 : 시 - 시회(詩會), 풍 - 풍류와 소요(逍遙)
중 - 중회소(齋室, 宗會所), 강 - 강학(講學)

전술한 입지 유형에 속하는 중재실형 정자를 살펴본바 ‘구상형(丘上形)’이 12동(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계변형(6동,30%), 근린형(4동,10%)의 순이었다. 지리산권의 동부지역(경남 서부)에서는 ‘계변형’, ‘구상형’, ‘근린형’의 세가지 입지 유형이 모두 나타난 반면 지리산권 서부지역(전남 동부)에서는 재실 용도로 사용되는 ‘근린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구상형’은 주로 지리산권 서부지역에서 나타났다.

지리산권의 중재실형 정자는 강학(후학 양성), 인격수양(학문), 시회(詩會), 문중 중회소(宗會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중재실형 정자의 용도를 살펴본바 대개 건축 당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당초와 다른 용도

14) 정자의 입지에 관해 선행연구에서(정동오, 1986)에서 강안형(江岸形), 구상(丘上) 및 산복형(山腹形), 근린형(近隣形)으로 구분한 성과를 참고했다.(정동오, 「전통적인 정자원림에 입지특성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1986, p.27) 이를 기초로 연구대상 정자의 입지특성을 반영하여 유형을 ‘계변형’, ‘구상형’, ‘근린형’으로 정리했다.

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소수의 정자만 건립 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장수(藏修)와 강학(講學)을 목적으로 지은 중재실형 정자는 창건주가 사망하면 자손이 선조를 추념하는 재실로 전용되었으며, 지리산권 동부지역에 속한 산청의 봉산재·일신재·죽림재가 좋은 사례이다. 산청의 중재실형 정자의 경우 보편적인 기능 외에 선조를 추모하는 재실로도 사용되었으며 대개 지리산권 동부지역의 정자가 서부지역보다 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말기 이후 나타난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경향¹⁵⁾이 나타났다.

표 4. 중재실형 정자의 정면 칸수와 평면형

구분	2×1칸형	3×2칸형	4×2칸형
지리산권 동부	-	산청 오의정 함양 거연정 함양 농월정 함양 동호정 함양 춘수정 (5동)	산청 봉산재 산청 일신재 산청 죽림재 진주 고산정 진주 부사정 진주 관란정
지리산권 서부	곡성 천연정	곡성 영산정 곡성 영수정 구례 방호정 구례 용호정 구례 운흥정 남원 사계정사 남원 퇴수정 (7동)	3×3칸형 곡성 함허정
사례	1동	12동	7동

3-2. 평면형식과 중재실

1) 규모와 평면형식

지리산권 중재실형 정자의 정면 칸수는 대개 3칸 내지 4칸이며, 곡성 천연정만 가장 작은 정면 2칸 규모의 건물이었다. 정면 2칸에서 1칸이 늘어난 정면 3칸 규모의 중재실형 정자는 일반형으로 지리산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각 5동씩 남아 있다. 반면에 정자의 정면 칸수가 4칸인 유형은 지리산권 동부지역(경남 서부)에만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중재실형 정자의 정면 칸수는 2, 3, 4칸 형으로 다양한 반면 측면의 규모는 정면 칸수와 상관없이 2칸으로 일정했다.(표.4)

연구대상 정자 중 정면이 3칸인 정자는 12동(60%)으로 수적(數的)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산권 동부지역의 산청 오의정·함양 농월정·함양 춘수정 및 서부지역의 곡성 영산정·구례 방호정과 용호정이 여

여기에 속한다. 화림동 계곡의 반석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함양 농월정(그림5)¹⁶⁾은 평면 중앙 후부에 단칸 크기의 중재실을 둔 정자이다. 지족당 박명부¹⁷⁾(朴明傅,1571~1639)가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을 벗 삼아 은거하기 위해 지은 정자¹⁸⁾로, 마루와 중재실의 경계에 머름을 꾸미고 창호를 달아 작은 규모의 중재실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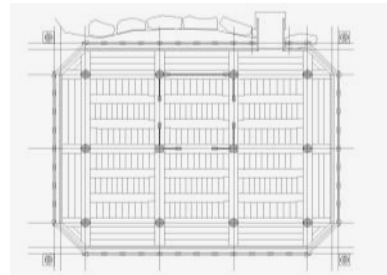


그림 5. 3×2칸 평면형(함양 농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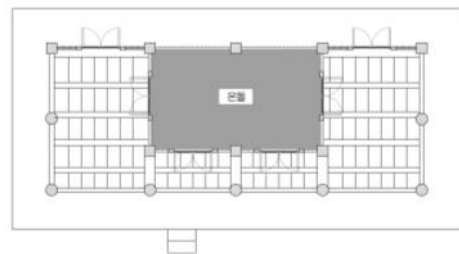


그림 6. 4×2칸 평면형(산청 일신재)

정면이 4칸 규모인 중재실형 정자는 지리산권 동부지역(경남 서부) 중 산청과 진주에만 분포하고, 반면 서부지역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정면이 4칸인 정자로는 산청의 봉산재(1879년)·일신재(1924년)·죽림재(1895년) 및 진주의 고산정(1906년)·부사정(1785년)·관란정(1901년)이 있다. 산청 일신재¹⁹⁾(1924년, 그림.6)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정자(표.7)로, 평면의 중앙 후부에 2칸(2×1칸) 크기의 중재실을 둔 평면이다. 중재실은 바닥에 구들을 놓아 난방할 수 있게 했다. 중재실 정면에 머름을 꾸미고 쌍여닫이창을 달았으며, 양 측면에도 쌍여닫이문을 달아 실내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재실의 배면은 벽으로 막혀 있고, 배면을 제외한 중재실 주위 삼면에는 우물마루를 꾸몄다. 산청 일

16)2003년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2015년 소설전 도면을 토대로 증정한 정자이다. 이 연구에서는 복원도면 및 옛 사진을 참고했다.

17)호는 知足堂, 아버지는 증 호조참판 박영이며, 한강 정구(鄭述)의 문인이다.

18)밤이면 달빛이 물아래로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했다고 하며, 이런 연유로 농월정 앞에 넓게 펼쳐진 반석을 달 바위라 한다.

19)경남 산청군 신안면 청현마을에 위치하며, 정자 우측에는 1642년에 건립된 淸谷書院이 있다. 일신재는 1871년 훼손된 것을 1929년에 재건한 것으로, 이는 「日新堂重建記」를 통해 알 수 있다.

15) 김찬영, 정명섭, 상주지역 누정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2 No.11,2016.11.pp.73.

신재와 같이 정면 간살이 3칸에서 4칸으로 확대된 정자는 당초 중회소와 강학을 위해 지은 정자이다. 1×1칸 크기의 협소한 중재실로는 중회소와 강학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면 칸수를 4칸으로 늘이고 중재실도 정면 2칸(2×1칸)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수의 사람이 모여 시회(詩會)와 풍류를 즐기기 위한 정자는 건축시기와 무관하게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유지한 것²⁰⁾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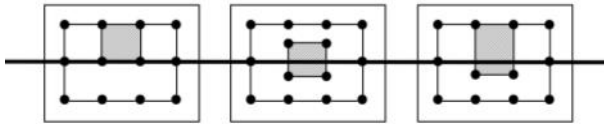


그림 7. 중재실의 위치와 평면형
(左: 후편재형 中: 중양형 右 후편재 확장형)

2) 중재실의 위치와 규모

중재실형 정자는 중재실의 위치와 구성에 따라 크게 ‘중양형’, ‘후편재형(後偏在形)’²¹⁾ ‘후편재확장형’으로 구분된다.(그림7) 먼저 ‘중양형’은 정자의 좌우 측면의 가운데 기둥과 중재실의 전면 주열(柱列)을 맞추지 않고 중재실의 전후 기둥을 앞뒤로 이동시켜 정자의 중앙부에 방형의 실(室)을 꾸민 형식이다. 연구대상 정자(20동) 중 7동(35%)이 ‘중양형’에 속하며, 중양형은 지리산권 동부지역의 진주 및 서부지역(전남 동부)의 곡성에만 분포하고 있다.

‘후편재형(後偏在形)’은 중재실의 전면(前面) 기둥 열을 정자의 좌우 측면 중앙 기둥에 맞춰 중재실을 중앙에서 후부로 치우쳐 배치한 것이다. 전체 연구대상 중 7동(35%)의 사례가 있다. 후편재형에는 지리산권 동부지역에 속한 함양의 농월정·동호정·춘수정 및 서부지역의 구례 방호정·운흥정, 남원 퇴수정, 15%)이 있다.

‘후편재확장형’은 중재실의 전면(前面) 주열(柱列)을 정자의 측면 가운데 기둥보다 앞으로 옮겨 세우는 방식으로 중재실의 실(室)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정자는 모두 6동(30%)이며, 지리산권 동부지역에 4동, 서부지역(전남 동부)에 2동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권의 동부지역인 산청군에 집중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중재실형 정자의 성격을 특징짓는 중재실의 크기는

20) 함양 춘수정, 곡성 영수정과 같이 중회소 기능을 가진 정자도 3×2칸의 규모인 것으로 보아 정자의 규모에는 입지, 건축경제, 건축문화 등이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 이 연구에서 ‘ㄷ자 마루형’을 후편재형이라 했으며, 이는 정자의 후면으로 중재실이 치우쳐 있는 평면형을 말한다.

대개 건물의 정면 칸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재실형 정자(12동, 60%)에서는 중재실의 크기가 불과 1칸(1×1칸)이지만 정면 칸수가 4칸(7동, 35%)이 되거나 측면 칸수가 3칸이 되면 중재실은 반드시 1칸에서 2칸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정면 간살이 4칸인 정자는 지리산권 동부지역의 산청, 진주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리산권 서부지역에서는 정면 4칸형 정자를 볼 수 없었다. 이 지역에는 측면 칸수가 2칸에서 3칸으로 확대된 3×3칸 형이 있는데, 곡성의 함허정·영산정·방호정이 여기에 속한다. 3×3칸 형도 서부지역의 곡성군에 집중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표 5. 중재실을 기준으로 한 평면형

유형	후편재형 (7동)	후편재 확장형 (6동)	중양형 (7동)
지리산권 동부	산청 오의정 함양 농월정 함양 동호정 함양 춘수정	산청 봉산재 산청 일신재 산청 죽림재 진주 고산정	진주 부사정, 진주 관란정, 함양 거연정
지리산권 서부	구례 방호정 구례 운흥정 남원 퇴수정	곡성 영산정 구례 용호정	곡성 영수정 곡성 천연정 곡성 함허정 남원 사계정사
중재실	3칸		
구성 방식	4칸		-

지리산권 서부지역에서는 정면이 3칸인 3×2칸의 평면형(중재실형 정자의 일반형)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간 확장의 필요시 곡성 함허정(그림14)처럼 보 방향의 간살을 확대하며 3×3칸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지리산권 동서 지역의 정자는 전체 규모 및 중재실의 위치, 공간 확대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3) 중재실의 바닥

연구대상 정자의 중재실 바닥은 구들 또는 마루로 되어 있다. 중재실 바닥에 온돌(구들)을 시설하면 필요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정자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서(寒暑)의 차가 큰 한국에서 중재실 방바닥에 온돌을 놓으면 계절과 상관없이 다양한 용도로 실을 사용할 수 있다. 중재실 바닥이 마루인 놓인 것은 누하주가 있는 누각형 정자에서 나타난다. 동계(冬季)를 제외한

더운 여름이나 따뜻한 봄, 가을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공간 이용에 제약이 있다.

표 6. 중재실 바닥 마감

권역	온돌(14동)	마루(6동)
지리산권 동부	산청 봉산재 산청 오의정 산청 일신재 산청 죽림재 진주 고산정 진주 부사정	진주 관란정 함양 거연정 함양 농월정 함양 동호정 함양 춘수정
지리산권 서부	곡성 영산정 곡성 영수정 곡성 천연정 곡성 함허정 구례 방호정 구례 용호정 구례 운흥정 남원 사계정사	남원 퇴수정

연구대상 정자에 남아있는 중재실의 바닥마감을 살펴본바 온돌인 사례가 대다수이고(14동, 70%), 마루인 사례는 소수인 6동(6동, 30%)에 불과했다. 이를 지리산권 동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부지역에서는 중재실 바닥에 온돌을 놓거나 마루를 꾸민 것이 비슷한 비율이었다. 이는 동부지역(경남 서부)에 누하주가 있는 누각형 정자가 많이 분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재실 바닥에 마루를 꾸민 사례는(6동, 30%) 계변에 지은 누각형 정자가 많은 경남 함양(동부지역)에 많이 남아있다. 바닥을 마루로 처리한 것은 입지 여건 및 누각형 건물의 구조특성, 건축용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8. 마루바닥의 중재실 (함양 동호정 - 누각형)



그림 9. 온돌바닥의 중재실 (구례 방호정)

이와 달리 지리산권 서부지역에 분포하는 중재실형 정자의 경우 중재실 바닥에 구들을 놓은 것이 총 9동 중 8동으로, 대부분의 중재실에 온돌이 놓여 있다. 다만 누각형 정자인 남원 퇴수정의 중재실에만 마루가 놓여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산권 정자의 중재실 바닥은 대부분(70%) 온돌이고, 이는 연구대상 정자의 대부분이 온돌이 널리 보급된 조선말기 이후 건축(또

는 중건)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3-3. 중재실형 정자의 구조와 입면형식

지리산권에 분포하는 중재실형 정자의 상부 가구는 지역 구분없이 모두 무고주 5량가의 형식이다. 즉 건물의 규모와 지역 구분 없이 모두 건물 내부에 고주를 사용하지 않은 무고주 5량가를 채택했다. 전후에 평주를 세우고 기둥 상부에 긴 대량을 걸고, 그 위에 다시 짧은 종보를 올리고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한 형식이다. 정자 양 측면의 중앙 기둥에서 대들보 위로 층량을 걸어 측면의 지붕가구를 지지하게 했다. 공포는 대부분 간결하게 꾸민 직절익공이며, 함양의 농월정과 동호정만 이익공식이다. 농월정은 이익공 쇠서의 위에 봉두를 올려 보머리를 장식한 것으로 익공쇠서 내단은 초각한 보아지 형태이다.



그림 10. 함양 농월정 종단면도 (출처: 농월정 수리보고서)



그림 11. 직절익공 (함양 거연정)



그림 12. 이익공 공포 (함양 동호정)

연구대상 중재실 정자의 입면은 누하주의 유무(有無)와 지붕과 처마형식, 난간형식 등에 의해 결정되었다. 처마는 흘처마 또는 겹처마로 처리했으며, 그 수는 흘처마 10동, 겹처마 10동으로 그 비율이 같았다. 겹처마는 지리산권의 동부지역인 함양과 진주에 분포하는 정자에서 많이 나타났고, 특히 누각형 정자(7/20)에 겹처마가 많이 사용되었다. 겹처마를 가진 함양 동호정의 네 귀에는 활주도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정자의 지붕은 모두 격이 높은 팔작지붕이며, 맞배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의 80%(16/20사례)에 해당하는 정자에 난간이 있었다. 난간은 평난간과 계자각 난간의 두 종류가 사용되었으며, 지리산권 동부지역에서는 계자각 난간 한 종류만 쓰인 반면 서부지역에서는 평난간과 계자각 난간이 모두 사용되었다.

외부에서 정자 내부로 출입하는 방식에서 누각형 정자와 비누각형 정자는 차이를 보였다. 누하주가 있는 누각형 정자의 경우 대개 측면 또는 배면에 있는 석계(石階) 등의 별도 출입시설을 이용해야 실내로 출입할 수 있다. 특히 계면에 입지하는 누각형 정자의 경우 대개 세부 의장이 정교하고 건물의 격이 높았으며, 단청을 한 사례(함양 동호정, 구례 방호정)도 있었다. 이는 건물의 위계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라 하겠다.

4. 지역성

4-1. 평면형식과 지역성

지리산권 동서지역에 분포하는 중재실형 정자의 지역성은 전체 규모와 평면형식 및 중재실의 구성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지리산권 중재실형 정자건축(20동)의 평면형식을 대별하면 2×2칸형(1/20동), 3×2칸형(일반형, 11/20동), 3×3칸형(2/20동), 4×2칸형(6/20동)의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리산권 서부지역의 정자 평면은 2×2칸 형(1/9동), 3×2칸 형(5/9동), 3×3칸 형(3/9동)으로 구분되며, 빈도로 보면 3×2칸 형 정자가 다수(5/9동)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수에 불과했다. 다수인 3×2칸 형(일반형)은 담양의 면양정과 식영정 등에서 볼 수 있는 연원이 오랜 평면형으로, 호남 누정문화의 확산으로 지리산권 서부지역에도 이 평면형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권 서부지역에서의 3×2칸 형(일반형) 정자는 근대 초기에 이르러 정면 칸수는 유지하면서 측면 칸수를 2칸에서 3칸으로 확대한 3×3칸 규모의 정자(그림.14)로 발전하며, 이때 중재실의 크기는 단칸(1×1칸)에서 2칸(1×2칸)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속하는 정자로는 곡성의 영산정과 방호정이 있으며, 이들 정자는 일제강점기 말에 지은 것으로 대개 건축시기가 늦다. 19세기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면 전반적으로 공간을 확대하려는 실(室) 면적 확대 경향이 나타나며²²⁾, 이는

22) 이호열, 「경북지방 근대한옥의 유형과 성격」, 『건축역사연구

정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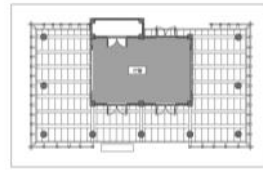


그림 13. 산청 죽림재 평면
(정면 4칸 / 중재실 2칸)



그림 14. 곡성 함허정 평면
(정면 3칸/중재실 2칸)

지리산권 동부지역(경남 서부)에서는 3×2칸 형(5/11동)과 4×2칸 형(6/11동) 정자의 비율이 비슷하며, 3×2칸 형은 호남지역의 일반적인 중재실형 정자와 평면구성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동부지역에만 분포하는 정면 4칸인(4×2칸) 정자(그림.13)는 협소한 중재실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정면 칸수가 4칸이 되면서 중재실의 크기도 단칸에서 정면 2칸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리산권 동부지역(경남 동부)에서는 서부지역과 달리 정면 도리 칸의 칸수를 늘이는 방식으로 정자와 중재실의 규모를 확대했다.

즉 지리산권 서부지역(전남 동부)에서는 측면(보 칸)의 칸수를 2칸에서 3칸으로 늘이는 방법으로 3×2칸에서 3×3칸(그림.14참조)으로 변화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하지만 동부지역에서는 정면의 도리 칸을 3칸에서 4칸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자와 중재실의 규모를 확대했다. 이처럼 지리산권 동서 지역에서는 정자와 중재실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다.

4-2. 구조와 입면구성에 보이는 지역성

지리산권 동부와 서부지역에 남아있는 중재실형 정자의 구조와 입면구성의 차이는 누하주의 사용 여부에 있다. 지리산권 동부지역에 분포하는 다수 정자는 누하주가 있는 누각형 정자인 반면 서부지역에서는 누각형 입면을 가진 정자는 단 1동(남원 퇴수정)이고, 대부분 중재실 주위 마루도 높이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누각형 정자는 지리산권 동부지역인 함양군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주로 계류변 암반 위에 위치하는 누각형 정자는 키 큰 누하주가 있는 누각형 입면이 큰 특징이

구」 6권3호,1997.3,p.106. 이밖에 18세기 이후가 되면 정자의 기능과 정주의 변화로 지역 및 씨족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실용적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성과를 통해서도 정자와 중재실의 규모가 늘어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김찬영외, 「상주지역 누정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Vol.32 No.11,2016.11.pp.79~80)

표 7. 연구대상 중재실형 정자의 건축특성 및 지역성

NO	명칭 및 권역	창건 (중건,중수)	입지	기능	규모	출입	중재실			건축 특성				
							규모	위치	바닥	공포, 처마	상부가구	활주	누하주 사용	난간
1	□ 산청 봉산재	1877(1841,중)	근린	중회	4×2	정면	2×1	후확	온돌	직절,홀	무고 5량	○	-	계
2	□ 산청 일신재	1924(?)	근린	중회	4×2	정면	2×1	후확	온돌	직절,홀	무고 5량	○	-	-
3	□ 산청 죽림재	1870(1895)	근린	중회	4×2	정면	2×1	후확	온돌	직절,홀	무고 5량	○	-	계
4	□ 진주 고산정	1622(1906)	구상	강학	4×2	배면	2×1	후확	온돌	직절,홀	무고 5량	-	○	계
5	□ 진주 부사정	1600(1902)	구상	강학	4×2	정면	2×1	중양	온돌	직절,겹	무고 5량	-	-	계
6	□ 진주 관란정	근대(1901)	구상	강학	4×2	정면	2×1	중양	마루	직절,겹	무고 5량	○	-	계
7	■ 곡성 함허정	1543(1980)	구상	풍류	3×3	정면	1×2	중양	온돌	직절,홀	무고 5량	-	-	-
8	■ 곡성 영산정	1942(?)	구상	중회	3×3	정면	1×2	후확	온돌	직절,겹	무고 5량	-	-	-
9	■ 구례 방호정	1935(?)	구상	사회	3×3	배면	1×1	후편	온돌	직절,홀	무고 5량	-	-	계
10	□ 산청 오의정	1872(1909)	구상	강학	3×2	양측면	1×1	후편	온돌	직절,홀	무고 5량	○	○	계
11	□ 함양 거연정	1872(1901)	계변	풍류	3×2	정면	1×1	중양	마루	직절,겹	무고 5량	○	○	계
12	□ 함양 농월정	1637(1895,2015)	계변	풍류	3×2	배면	1×1	후편	마루	이익,겹	무고 5량	○	○	계
13	□ 함양 동호정	1895(1936)	계변	사회	3×2	좌측면	1×1	후편	마루	이익,겹	무고 5량	○	○	계
14	□ 함양 춘수정	1947(1987)	구상	중회	3×2	좌측면	1×1	후편	마루	직절,겹	무고 5량	○	○	계
15	■ 곡성 영수정※	1826년(1879)	구상	향약	3×2	정면	1×1	중양	온돌	직절,홀	무고 5량	-	-	평
16	■ 구례 용호정	1916(1945,1992)	구상	사회	3×2	정면	1×1	후확	온돌	직절,겹	무고 5량	-	-	평
17	■ 구례 운흥정	1926(?)	계변	사회	3×2	양측면	1×1	후편	온돌	직절,홀	무고 5량	-	-	계
18	■ 남원 사계정사	1609(?)	구상	풍류	3×2	양측면	1×1	중양	온돌	직절,겹	무고 5량	-	-	평
19	■ 남원 퇴수정	1870(?)	계변	풍류	3×2	양측면	1×1	후편	마루	직절,겹	무고 5량	-	○	계
20	■ 곡성 천연정	1900년경(?)	구상	강학	2×2	정면	1×1	중양	온돌	직절,홀	무고 5량	-	-	-

범례 1) 분포지역 구분 : □ - 지리산권 동부지역 ■ - 지리산권 서부지역
 2) 입지 유형: 계변형-‘계변’, 구상형 -‘구상’, 근린형 - ‘근린’으로 표기
 3) 중재실 위치 : 후편재-‘후편’, 후편재확장형 -‘후확’, 중앙형 - ‘중앙’으로 표기
 4) 난간 유형 : 계자각난간- ‘계’, 평난간- ‘평’, 난간이 없는 것 ‘-’로 표기
 6) 공 포 : 직절-직절익공, 이익-이익공 6)처마 : 홀-홀처마, 겹-겹처마 7) 무고 : 무고주
 ※ 곡성 영수정은 조선말기에 곡성지역 일급성씨들이 모여 향약(鄉約) 12조를 시행했던 곳으로 유명

다. 누각형 정자는 중재실의 외곽에 은 마루를 놓고, 외진기둥 밖으로 현함을 내밀고, 거기에 계자각 난간을 두른 형태이다.(그림.15) 누각형 정자의 중재실 바닥은 구조 특성상 마루이고, 실(室) 주위에는 주로 들어 여는 창호를 시설하여 필요시 내외공간을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달리 지리산권 서부지역의 일반형 정자는 마루의 높이가 낮으며, 마루 주위에 난간을 두르지 않았다(그림.16) 난간을 시설하더라도 간략한 평난간을 두른 것이 일반적이었다.

출입하는 중재실의 전후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주간에 현함과 계자각 난간을 꾸민 사례이다. 반면 지리산권 서부지역의 정자(3×3칸)인 구례 방호정(그림.18)은 현함 없이 외진주 밖에 계자각 난간을 두른 사례로, 호남의 일반적인 중재실형 정자에 비해 화려한 편이나 누하주에 현함, 계자각 난간 등을 모두 갖춘 동부지역의 누각형 정자에 비해서는 검박한 편이다. 이같은 서부지역 정자의 조형과 외관은 계자각 난간을 두루 갖춘 누각형 정자에 비해 소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15. 함양 동호정



그림 16. 곡성 영수정



그림 17. 산청 죽림재



그림 18. 구례 방호정

지리산권 동부지역의 누하주를 둔 누각형 정자의 세부형태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격이 높은 계자각 난간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산권 동부지역의 산청에 남아있는 죽림재(그림.17)의 경우 사람들이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산권 동서 지역의 정자의 경우 세부조형과 평면형식 등에서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정자의 입면과 구조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도 있었다. 이같은 지역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씨족간의 유대와

송조 관념에 따라 타지역 정자문화를 적극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 사례로 남원 퇴수정을 들 수 있다. 지리산권의 서부지역에 속한 남원 퇴수정은 씨족관계에 의한 인적 교류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부지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누각형 정자인 남원 퇴수정은(그림.19) 조선후기에 선공감의 가감역관을 지낸 매천 박치기가 퇴임 후 고향인 경남 산청 안의(지리산권 동부)에서 전남 남원시 매동(서부)으로 이주하여 1870년에서 지은 것이다. 퇴수정을 건립한 박치기는 동부지역안 함양에 세거하며 농월정(그림.20)을 지은 박명부의 후손²³⁾으로, 선조(박명부)가 조영한 농월정의 건축형식을 따라 그 지역에서 보기 드문 형태의 퇴수정을 지었다.



그림 19. 남원 퇴수정



그림 20. 함양 농월정

이처럼 독특한 건축연혁을 가진 남원 퇴수정은 호남의 일반적인 중재실 정자의 평면형식(3×2칸)을 따르면서도 건축형태는 함양의 누각형 정자인 농월정을 따르는데 큰 특징이 있다. 남원 퇴수정은 구조 특성상 중재실 바닥에 온돌 대신 마루를 꾸몄으며, 함양 농월정처럼 누마루 주위에 현함을 꾸미고 출입부를 제외한 사방에 계자각 난간을 둘렀다. 무엇보다 남원 퇴수정은 씨족관계와 송조(崇祖)관념이 중재실형 정자의 구조와 건축형태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결론

앞에서 지리산권 중재실형 정자에 대해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리산권 동서부 지역에 분포하는 중재실형 정자의 입지유형을 살펴본바 동부지역(경남 서부)에서는 ‘계변형(溪邊形)’, ‘구상형(丘上形)’, ‘근린형(近隣形)’의 세 유형이 모두 나타난 반면 지리산권 서부지역(전남 동부)에서는 ‘구상형’ 정자의 분포 비율이 동부지역보다 높고, ‘근린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중재실형 정자는 강학, 인격수양(학문), 시회(詩會), 문중 종회소(宗會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해 건립되었으나, 지금은 당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재실의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동부지역의 장수(藏修)와 강학을 위해 지은 정자는 중건, 중수 이후 재실(齋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자의 용도와 기능면에서는 동부지역의 정자가 서부지역보다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보였다.

셋째, 지리산권 중재실형 정자의 평면은 정면 2, 3, 4칸 형으로 구분되나 측면 칸수는 정면의 칸수와 상관없이 대개 2칸으로 일정했다. 호남의 전통적인 중재실형 정자인 일반형(3×2칸)은 지리산권 동서 지역에 두루 분포하지만, 규모가 늘어난 3×3칸 형(서부지역)과 4×2칸 형(동부지역)은 지역 건축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서부지역에서는 일반형에서 보 방향(측면)으로 1칸이 늘어난 3×3칸 형으로 변화했지만, 동부지역에서는 도리 칸(정면)을 확대하여 4×2칸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정자의 평면형식과 중재실의 규모 확대 방법에 지역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지리산권 중재실형 정자의 상부가구는 건립시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무고주 5량가로, 대량 위에 종보를 올리고 대공을 세워 중도리와 지붕가구를 지지하는 구조이며, 측면에서는 중앙 기둥에서 대들보 위로 층량을 걸어 지붕가구를 지지하고 있다. 계변(溪邊)에 입지하는 지리산권 동부지역의 정자는 누각형 6동, 일반형 5동으로 누각형이 다수이며, 누각형 정자는 누마루 형태로 마루를 높게 구성하고, 기둥 외곽에 현함을 꾸미고 계자각 난간을 두른 형태이다. 서부지역의 정자는 마루가 낮고, 난간을 두르지 않는 검박한 조형이 특징이며, 이 같은 동서 지역의 상이한 건축형태는 지역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지리산권 정자의 중재실은 실(室)의 위치에 따라 크게 ‘중앙형(6/20동)’, ‘후편재형(8/20동)後偏在形’ ‘후편재확장형(6/20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자의 건축시기와 결부시켜 볼 때 ‘중앙형’, ‘후편재형’, ‘후편재확장형’의 순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형은 지리산권 동부지역의 진주·함양 및 서부지역(전남 동부)의 곡성·남원에 분포하고 있다. 후편재형은 사례가 가장 많으며, 서부지역의 구례·남원 및 동부지역의 산청·함양에 주로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에 지은 정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후편재확장형은 동부지역에 4동(30%), 서부지역에 2동이 남아 있다.

여섯째, 지리산권의 정자는 중재실의 규모 확대 방법에서 지역차가 있었다. 지리산권 서부지역(전남 동부)에서는 측면(보 칸)의 칸수를 2칸에서 3칸으로 늘이

23) 이현우 외3명, 『매천별업 퇴수정원림의 의미경관론적 해석』, 2011,

는 방법으로 3×3칸 형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동부지역에서는 정면의 도리 칸을 3칸에서 4칸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자와 중재실의 규모를 확대했다. 이처럼 지리산권 동서 지역에서는 정자와 중재실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다. 중재실 바닥은 대부분 온돌이며(14동, 70%), 마루를 꾸민 사례는 소수였다.(6동, 30%) 동부지역에서는 중재실 바닥을 온돌 또는 마루로 처리한 비율이 비슷했으나 서부지역의 중재실 바닥은 대부분 온돌이었다.(8/9동, 89%) 이처럼 중재실의 규모와 바닥마감에도 지역차가 뚜렷했다. 그리고 누각형 정자인 남원의 퇴수정(서부지역)을 통해 씨족관계 등의 인문적 요인의 영향이 건축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리산권 동서 지역에 남아있는 중재실형 정자의 경우 전체 규모, 평면형식, 입면과 구조형식 및 중재실의 크기와 형식 등에서 동질적인 면이 많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작용해온 지역 건축문화(호남과 영남)의 영향으로 그 지역만의 특성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정동오, 「전통적인 정자원림에 입지특성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1986
2. 김동욱, 「담양 면양정의 건축형태」-호남지역 건축의 지역성 형성에 대한 소고-, 『건축사연구』 9권3호, 2000
3. 홍영기, 「지리산권 문화」 연구의 방향,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 2009
4. 이현우 외3명, 『매천별업 퇴수정원림의 의미경관론적 해석』, 2011
5. 이호열, 손희경, 중실형 정자건축의 분포지역과 지역성,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6. 손희경, 「조선후기 중실형 정자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경남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16
7. 순천대 지리산문화권연구원, 지리산권 서원자료선집.2, 2010
8. 김창순·이전, 촌락가옥의 유형과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52권, 2호, 2017
9. 김찬영외, 「상주지역 누정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32권11호』, 2016.11.
10. 이호열, 경북지방 근대한옥의 유형과 성격, 건축역사연구 6권 3호, 1997.3.

접수(2021. 12. 30)

수정(1차: 2022. 02. 07)

게재확정(2022. 02. 15)